

“호남예술제 다가올 때 쯤이면 학교 전체가 축제였지요”

‘나와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 전시회서 만난 초대작가 5인

꼬마들의 시선을 한번에 빼앗은 동물원 얼룩말, 신나는 물놀이 에 웃음꽃을 터트리는 아이들... 전시장에 걸린 그림을 둘러보는 화가들의 얼굴엔 웃음이 절로 번진다. 어릴 적 추억도 생각나는 모양이다.

13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전시에는 최근 10년간 미술부문 최고상 수상작품 53점과 작문부문 최고상 수상작품 34점이 내걸렸다. 지난 1956년 첫 행사를 진행한 호남예술제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이었다.

이번 전시에는 호남예술제에 참여했거나 심사를 맡는 등 호남예술제와 인연이 있는 기성작가 5명의 작품도 함께 전시 중이다. 서양화가 최영훈 전 광주시립미술관장, 한희원 작가, 강남구 작가, 조운성 조선대 교수, 건축사 정보섭씨를 현장에서 만났다.



지난 13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 전시회에 참석한 작가들이 학생들의 전시작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참가자, 심사위원으로 호남예술제와 인연을 맺고 있다. 왼쪽부터 정보섭·조운성·최영훈·한희원·강남구 작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회 대회때 선교사촌 녀다 옷 찢어지기도

한창때는 이틀에 작품 1만점 넘게 심사

유치부·초등생 풍부한 상상력 항상 놀라워

호남예술제와 가장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이는 최영훈 작가다. 최 작가는 호남예술제 전신인 ‘제1회 어린이 사생대회’부터 참여했다. 서석국민학교 3학년 때다. 중·고등학교까지 거의 대회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조선대 교수가 된 이후에는 오랫동안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로워요. 호남예술제는 제 인생과 함께 흘러왔다는 생각이 새삼스러워 드네요. 그리기 뿐 아니라 독창 부문에도 참가했어요. 첫 행사가 사직공원에서 열렸는데 좀 더 멋진 모습을 그리겠다고 선교사

촌 담을 넘어가다 옷 찢어지고, 개에 쫓겨 신발을 잃어버린 기억도 납니다(웃음) 한 살 위인 형이 당시 1등상을 받았는데 지금도 갖고 있는 스크랩을 들춰보면 오지호 선생 등의 심사평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당시 드문 유행을 그려 우수상도 받았어요.”

조선대 교수로 임용된 30대 중반부터는 호남예술제 심사위원을 맡았다.

“한창 때는 이틀에 걸쳐 1만점이 넘는 작품을 심사할 때도 있었어요. 힘들면서도 의미있는 일이었죠. 호남예술제는 지역 출신 작가들

에게는 통과리레같은 거였습시다. 앞으로도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많은 예술가들을 길러내 주길 바랍니다.”

조선대 조운성 교수는 살레시오초등학교 재학 시절 출간 호남예술제에 참여했고, 3학년 때인 1981년 26회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당시 호남예술제가 다가올 때 쯤이면 학교 전체가 축제였어요. 미술반, 음악반, 작문반 등 각자 활동하고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죠.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삶의 한 부분처럼 여겼

니다. 초등학교 내내 그림 그리고 매년 호남예술제를 그 목표로 삼고 즐겁게 준비하면서 그림 그리는 것이 자연스레 일상이 된 거죠. 창의적인 작업을 한다는 게 진짜 고통스럽지만 의무감이 아닌, 자연스레 삶을 풀어나가며 겪어 가는 과정이 된듯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연속 최고상을 받았던 정보섭(56)씨는 건축가로 진학, 현재 (주)건축사무소 포럼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정읍시청, 광주 거주교회 등을 설계했다.

“중학교 때 최고상을 받았던 건 기억이 났는데 고등학교 때도 최고상을 받은 사실은 이번에 알았어요. 형님(정상섭 작가)도 그림을 그리셔서 미술과 익숙했죠. 제가 그린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내 작품을 선보이는 ‘건축’이라는 장르가 매력적이라 진로를 건축가로 결정했지요.”

올해 60회 심사위원을 맡았던 강남구 작가는 “예년에 비해 참가자수가 다소 줄어들어 아쉽기는 하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유치부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작품을 심사할 때는 흥미롭다”며 “지금 디자인 일을 하는 동생도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두번이나 받았다”고 호남예술제와의 인연을 덧붙였다.

광주일보사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된다. 무료 관람. 문의 062-220-05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통국악으로 만나는 심청전

‘울’ 창단 연주회... 17일 빛고을문화회관

정통국악을 연주하는 그룹이 오랜만에 선을 보인다. 최근 지역에서는 다양한 국악 관련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악기 구성으로 이뤄진 퓨전 그룹이 많아 아쉬움이 있었다.

17일(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회관) 창단 연주회를 갖는 ‘울’(律)은 정악, 민속악 등 다양한 국악을 들려주되,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제례악과 가곡, 판소리 등 전통문화예술을 연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단 연주회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국악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단순히 레퍼토리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토리가 있는 고전소설 ‘심청전’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창단 공연은 정악, 민속악, 판소리, 병창, 궁중무용(정제) 등과

함께 서양오케스트라를 접목시킨 ‘악·가·무 궁중심청’이다. 작품은 ‘여민동락’ ‘인당수’, ‘궁의 아침’ ‘그리움’, ‘궁중잔치’, ‘재희’, ‘만좌백인’, ‘태평성대’ 등 모두 11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궁중잔치에서 무동 등이 모란꽃을 꽂은 화병을 두고 추는 궁중무용인 ‘가인전목단’, 조선 후기 연례악 중 하나인 ‘일승월향지곡’, ‘수제전’ 등 다양한 궁중음악과 무용 등을 만날 수 있다.

‘울’은 국립국악원과 광주시립국악단 상임 수석 역임한 나영선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에는 나빌레라 예술단(대표 한명선), 필리아오케스트라(대표 서효관)가 함께 출연하며 흥정의 밴드 ‘엑스’ 대표 프로듀서)씨가 작곡과 편곡을 맡았다.

심봉사 역으로는 양신승(전남도립국악단 상임 수석), 심정 역으로는 임서연(전남도립국악단 단원)씨가 출연한다. cafe, naver.com/gukakayul.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글씨야 그림이야



‘消化不良’

예술의 거리 갤러리D 20~26일 서예가 김명석 개인전

한 획에 투혼을 담고, 또 한 획에 삶의 철학을 담는 서예는 복잡해지는데 현대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D는 오는 20~26일 김명석 서예가의 다섯 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MISSING BRAIN’을 주제로 다양한 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서예작품을 선보인다. 한문을 비롯해 한글, 영문 등의 문자들을 회화적 형식과 필획의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한다.

김씨는 전통 서예적 기법과 작가의 독창적인 필체 구성으로 획들을 나누고 연결해 새롭게 조형화하고 있다. 틀에 박힌 경전이

나 익숙한 서체가 아닌 작가 자신이 선택한 영문과 한문들을 사용해 단어가 주는 이미지와 인상을 추상적 형상으로 담아낸다. 영어로 풀어진 작품 ‘Truth-진실(180x360, 2015)’은 3m가 넘는 대작으로 비가시적 형상의 조화를 통해 사실적 공간이 아닌 이상적 형상을 보여주며 진상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김씨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를 수료했다. 서울과 광주 등에서 4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문의 062-222-8011.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광주성공회센터 글쓰기 교실

극작가 김영학씨 강사

수강료 무료...여성 30명 모집

광주성공회센터가 지역 여성을 위한 ‘청노루글쓰기교실’을 운영한다.

내달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오후 7시~9시) 남구 월산동 광주성공회센터(화성 회관 건물 3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글쓰기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총 15강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극작가 겸 조선대 교수인 김영학 씨가 강사로 나서 문장 및 단락 쓰기, 묘사 및 서사 쓰기, 일상을 기록하는 법, 에세이 쓰는 법, 글쓰기 치료 등을 강의한다.

강의를 희망하는 수강생은 9월 7일까지 다음 카페 ‘청노루글쓰기’ 공지사항에 댓글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30명. 문의 010-5642-9263. /박성천기자 skypark@



www.doidam.net **펜션대박**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통나무가구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8월 22일까지**

SALE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 1899-0240 **신상품 다량 입점**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